

# 익산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본격

### 3개 거점지역 중심지·간선제 도입 등 효율적 방안 논의 내달부터 권역별 주민설명회...하반기 최종 개편안 마련

익산시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지·간선제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시는 이번 개편을 위해 전문용역을 진행하고 버스 관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효율적 개편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운영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버스 업계가 참여하는 TF팀 구성과 함께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에는 오래된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과 지·간선제 도입 등 대대적인 개편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3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지·간선제를 활용해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중점 분석한다.

시내에서 합열, 금마, 여산 등 주요 노선까지 버스(간선)를 운행하고 이곳에서 환승해 용포와 상당 등 11개 읍·면(지선)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다.

기존 단일화된 시내버스 노선을 도심(간선)과 읍·면(지선)으로 나눠 운행할 경우 노선 회전율이 높아져 배차 시간을 늘릴 수 있고 노선 조정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읍·면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버스 운전자들의 안전확보와 복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노선별 대중교통수단과 버스정류소, 환

승시설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행복 콤플렉스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시내버스 운영체제 개편을 위해 시내버스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다.

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부터 11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간선제 개편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하반기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다.

정현을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객이 시민들인 만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용역 착수 보고회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11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정현을 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LIF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과업수행 및 사업 실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사업의 역량 강화, 기능보강 추가 사업 발굴 등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산업단지 확장 타당성 논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용역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모델 제시와 함께 농식품부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다.

한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난 2012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LIF에서 공사에 착공해 2017년에 산업단지로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준공 이후 입주기업 및 근로자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및 산업단지 확장 타당성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익산시는 농식품부와 전라북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농식품부는 1단계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입주 기업 기능이 본격화되는 등 2단계 추진 여건이 성숙되면 순차적으로 산단을 추가 조성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 익산시가 전라북도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으로 2단계 사업추진 타당성 용역을 주도해 기재를 함께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11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8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현정방문 등을 실시했다. 본회의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 및 수정 가결했다.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찬반토론을 통해 표결방향을 거쳐 부결됐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기간 동안 의원들은 집행부 업무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집행부에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3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속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강원연병연구소 익산시 유치 건의안", 박종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국내복합기업 입주보조금 신설 계획 철회 건의안"을 의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본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약 민관협력형(PPP형) 사업추진



군산시는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문화회관의 건축학적 의미와 가치를 살린 리모델링과 향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초점을 맞춘 민관협력형(PPP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시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된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선정됐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건물리모델링, 야외주차장 경관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그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만 정부지원이 가능했던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다르게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도 생활SOC, 임대주택·상가공급 등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점 단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함께 근거가 마련됐으며 규모에 따라 국비 10억원~5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문화회관의 건축학적 의미와 가치를 살린 리모델링과 향후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초점을 맞춘 민관협력형(PPP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운영중심의 민관협력형(PPP형) 도시재생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공공시설 건립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후에 운영단계에서는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시설 운영 적자를 최소화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우수한 콘텐츠 제공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최대화 시키는 도시재생 프로세스다.

군산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협약을 통해 시설물 활용에 중점을 둔 건축기획으로 프로그램 시범 운영, 운영자 선정 및 설계 공모는 물론, 리모

델링 완료 이전인 현 상태에서부터 전시, 이벤트, 공연, 아카데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장은 "군산시는 이미 SK E&S의 로컬라이징 사업 등 다양한 민간 협업 사업을 실행하고 있고 민간 주도·민관협력이 국가 도시재생정책 방향의 핵심인 만큼 이번 협약과 성공적인 업무 추진으로 군산시가 민관협력형(PPP형) 도시재생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 군산시, 해조류양식 대체품종 개발나서

### 가리비 치패 30만마리 입식

군산시가 신품종(패류)양식 개발을 위해 가리비 치패를 입식하며 해조류 양식의 대체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11일 신품종 양식어장 개발을 위해 비안도 인근 해역에 신품종 시험양식 어장을 설치하고 가리비 치패 30만마리를 입식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으로 해조류(김) 양식산업이 자리 잡았으나, 최근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품질 저하 및 황백화, 갯병 등 질병피해가 자주 발생하며 대체 신품종 양식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해역 특성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을 위해 오는 2023년(3년간)까지 시비 3억원을 반영해 우리시 관내

해역에 신품종 양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사업의 첫 해인 올해에는 수산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신품종 시험양식, 대상해역을 비안도 해역으로 선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시험어업 협의를 거쳐, 채종식으로 가리비 치패를 입식해 5~6개월간 양식하며 서식환경 조사 및 경제성을 평가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1~2mm인 가리비 치패 시험양식을 위해 매일 2회씩 채종 및 부자에 부착한 오소생물(따개비, 바다말뚝 등) 제거, 크기별 선별후 재입식 등 월별 성장률 조사, 관리를 거쳐 4.5cm 이상의 상품으로 수확하고 입식 치패량의 80% 이상 양식을 성공시켜 군산시의 '신양식 품종 메카'로 탈바꿈 하고자 한다. /군산=김판근 기자

# 군산시, 군산쌀 품질 고급화 역점 추진

군산시가 군산쌀 품질을 고급화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WTO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급변하는 쌀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쌀 유통기반 구축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 등 2개 사업에 2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2020년 전북쌀 가격 높이 기(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9억원을 투자해 육구농협, 옥산농협, 회현농협의 노후화된 벼 건조·저장시설을 개선한다. 또한, 군산쌀의 미질 향상을 위해 2020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벼 건조·저장시설 증축 등 2개소(서군산농협 등)에 12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군산=김판근 기자

### 군산시 자연재난대비 분주

군산시가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2020년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폭염일수가 20일 이상으로 평년대비 2배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8월말까지 집중호우를 예보하고 있으며, 6월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돼 7월말까지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상상황을 전망하고 있다.

시는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수립하고 오는 9월말까지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